MARKET INSIGHT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7.28

미 증시, 장 후반 BOJ 통화정책 우려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ECB의 힘에도 불구하고 BOJ 우려로 하락 전환

- 미 증시는 메타 플랫폼(+4.40%)과 반도체 업종이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한 가운데 견고한 2분기 GDP성장률로 인한 경기 자신감이 유입되자 상승 출발. 더불어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파월에 이어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도 상승 요인. 그렇지만, 일부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매물이 출회되는 과정 속 장 후반 BOJ가 수익률 곡선 조정 논의를 할 것이라는 매파적인 내용이 전해지자 상승 반납. 이후 매물 출회가 확대되며 결국 하락 전환(다우 -0.67%, 나스닥 -0.55%, S&P500 -0.64%, 러셀2000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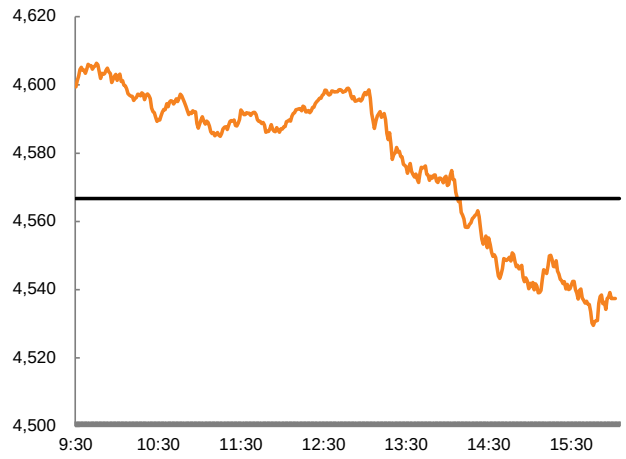
특징 종목: 시간 외, 인텔, 포드 KLA 등 상승 중

- 메타 플랫폼(+4.40%)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에 힘입어 한 때 9%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으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 일부 반납. 램리서치(+9.28%)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로 급등. AMAT(+5.12%)도 동반 상승. 여기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실적발표를 통해 공급 축소를 시사하자 마이크론(+5.48%) 등의 강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6% 상승. 한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인텔(+0.55%)은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시간 외 6% 내외 상승 중이며, 포드(+0.55%)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에 힘입어 시간 외 1% 내외 상승 중

한국 증시 전망: BOJ와 2차전지 업종 여파로 변동성 확대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1.79%, MSCI 신흥 지수 ETF는 1.2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2.4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52% 하락. KOSPI는 0.5% 내외 하락 출발.
- 미 증시가 연준에 이은 ECB의 온건한 통화정책에 힘입어 상승하기도 했으나, 매파적인 BOJ에 대한 우려를 빌미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더 나아가 전일에 이어 오늘도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6% 상승한 데 이어 인텔과 KLA 등이 양호한 실적을 보여 시간 외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우호적. 이런 가운데 시장은 BOJ 통화정책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 미 증시의 하락 전환 요인이 BOJ가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하락 출발 후 일본 BOJ 통화정책 결과 이후 변화가 예상되며 2차 전지 업종 중심의 수급도 변동성 확대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03.81	+0.44	상해종합	3,216.67	-0.20
KOSDAQ	883.79	-1.87	홍콩항셍	19,639.11	+1.41
DOW	35,282.72	-0.67	베트남	1,197.33	-0.29
NASDAQ	14,050.11	-0.55	유로스톡스 50	4,447.44	+2.33
S&P 500	4,537.41	-0.64	영국	7,692.76	+0.21
캐나다	20,385.47	-0.86	독일	16,406.03	+1.70
일본	32,891.16	+0.68	프랑스	7,465.24	+2.0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①ECB 통화정책회의 ② BOJ 통화정책회의

연준이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데이터를 지켜보며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 파월의장은 관련 발언 직후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가 자신들의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었다고 언급해 결국 온건한 통화정책 가능성을 시사.

이런 가운데 ECB도 정책 금리를 25bp 인상.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로존 경제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언급. 제조업도 외부 수요 부진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주택 및 기업 투자도 약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 즉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

더불어 9월 금리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동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데이터에 집중하겠다고 주장. 이는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지난번 회의때의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선 양상. 특히 시장에서 언급되던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라가르드 총재의 온건한 통화정책 시사 발언에 유로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는 2% 내외 상승.

한편, BOJ가 오늘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0.5% 상한선을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도록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YCC)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짐. 지난 12월 BOJ는 0.25%로 제어되어 왔던 금리를 0.5%까지 열어놓는 정책을 발표 했었는데 이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이는 BOJ의 금리인상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매파적인 움직임.

BOJ는 지난 7월 초 주요 은행 대상으로 수익률 곡선 통제가 조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를 조사했는데 폐지할 경우 금리 급등 위험이 있음을 지적 받았다고 알려짐. 당시 이번 BOJ 회의에서 YCC 정책 변화를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고 일본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자 우에다 총재가 7월 중순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엔화 약세가 다시금 이어져 일본 증시도 강세.

이런 가운데 니혼 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들이 오늘 있을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YCC 정책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폭을 확대했으며 미 증시도 상승분을 반납 이후 하락 전환. 결국 오늘 있을 BOJ 통화정책 회의의 중요도가 높아짐.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시간 외, 인텔, 포드, KLA 상승 중

메타 플랫폼(+4.40%)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에 힘입어 한 때 9%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으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 일부 반납.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8.72%)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등했고 노르웨이 크루즈(+2.70%), 카니발(+3.23%)도 동반 상승. 컴캐스트(+5.69%)와 맥도날드(+1.18%), 애브비(+4.90%)는 양호한 실적 발표로 상승했으며 사우스웨스트 항공(-8.94%), 치폴레 맥시칸 그릴(-9.81%), 이베이(-10.53%), 허니웰(-5.69%)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여파로 하락.

램리서치(+9.28%)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로 급등. AMAT(+5.12%)도 동반 상승. 여기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실적발표를 통해 공급 축소를 시사하자 마이크론(+5.48%), 엔비디아(+0.99%), AMD(+0.92%)등 대부분 반도체 관련 종목군이 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6% 상승.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인텔(+0.55%)은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 발표와 PC 시장의 회복 조짐을 보인 데 힘입어 시간 외 6% 내외 상승 중이며, 포드(+0.55%)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로 시간 외 1% 내외 상승 중. 반도체 장비 업종 KLA(+5.35%) 또한 램리서치에 이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 3% 내외 상승 중. T-모바일(-0.86%)은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 여파로 시간 외 2% 내외 하락 중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73	대형 가치주 ETF (IVE)	-0.67
클린테크 ETF (CTEC)	-2.78	중형 가치주 ETF (IWS)	-1.10
소매업체 ETF (XLY)	-1.04	소형 가치주 ETF (IWN)	-1.33
온라인소매 ETF (EBIZ)	-1.85	대형 성장주 ETF (VUG)	-0.66
미국 인프라 ETF (PAVE)	-0.84	중형 성장주 ETF (IWP)	-1.19
핀테크 ETF (FINX)	-1.77	소형 성장주 ETF (IWO)	-1.27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3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9
클라우드 ETF (CLOU)	-1.36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80
사이버보안 ETF (BUG)	-0.52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81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74	미국 국채 ETF (IEF)	-1.09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66	하이일드 ETF (JNK)	-0.78
바이오섹터 ETF (IBB)	-0.72	신흥국 채권 ETF (EMBD)	-0.66
로봇&AI ETF (BOTZ)	-0.96	물가연동채 ETF (TIP)	-0.73
반도체 ETF (SMH)	+1.8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2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커뮤니케이션	225.52	+0.85	+3.92	+5.58
IT	3,117.01	-0.34	-0.52	+2.95
에너지	655.25	-0.54	+2.41	+8.00
소재	533.01	-0.67	+1.11	+3.67
헬스케어	1,569.73	-0.77	-0.13	+2.76
필수소비재	790.16	-0.81	+0.07	+1.64
산업재	926.15	-0.82	-0.51	+3.80
경기소비재	1,330.34	-0.87	-0.60	+1.66
금융	583.55	-1.39	-0.81	+6.50
유틸리티	341.41	-1.73	-0.37	+2.25
부동산	238.42	-2.12	-1.12	+2.3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BOJ와 2차전지 영향으로 변동성 확대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1.79%, MSCI 신흥 지수 ETF는 1.2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2.4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52% 하락. KOSPI는 0.5% 내외 하락 출발.

전일 한국 증시는 여전히 이어진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 완화, 그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그렇지만,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 시사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통한 공급 축소 기대에 힘입어 관련 종목이 급등하자 KOSPI는 강세. 이런 가운데 2차전지에서 바이오 등 다른 테마로의 수급 확산으로 관련 종목이 견고한 모습을 보인 점도 긍정적. 다만, 2차 전지 업종 중심으로 큰 폭 하락하자 KOSPI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0.44% 상승으로 마감했으며 KOSDAQ은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 결국 1.87%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연준에 이은 ECB의 온건한 통화정책에 힘입어 상승하기도 했으나, 매파적인 BOJ에 대한 우려를 빌미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더 나아가 전일에 이어 오늘도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관련 테마로 매수세가 쏠릴 경우 여타 종목에 대한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여전히 매물이 출회될 경우 하락 변동성이 확대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6% 상승한 데 이어 장 마감 후 인텔과 KLA 등이 양호한 실적을 보여 시간 외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우호적. 반도체 업종은 이러한 흐름을 감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어 긍정적이나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변화는 주목

이런 가운데 시장은 연준과 ECB에 이어 오늘 있을 BOJ 통화정책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 미 증시의 하락 전환 요인이 BOJ가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YCC)을 논의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하락 출발 후 일본 BOJ 통화정책 결과 이후 변화가 예상되며 2차 전지 업종 중심의 수급도 변동성 확대 요인.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견고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이 예상했던 1.5%를 상회한 2.4%로 발표. 소비, 재고 등이 성장률 개선에 영향을 준 반면,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발표된 22.8만 건이나 예상했던 23.5만 건을 하회한 22.1만 건을 기록. 4주 평균도 23만 7,500건에서 23만 3,750건으로 감소.

미국 6월 내구재 주문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2.0%나 예상했던 0.5%보다 큰 4.7% 증가. 운송을 제외한 수치는 0.7%에서 0.6%로 둔화됐으나 예상했던 0.1% 감소보다는 양호.

미국 6월 잠정 주택판매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2.5% 감소에서 0.3% 증가로 전환해 예상에 부합.

상품 및 FX시장 동향

미국, 유럽 천연가스, 폭염이 가라앉자 하락

국제유가는 OPEC+ 일부 국가들의 자발적인 감산 등으로 공급 축소 이슈가 부각되자 상승. 더불어 비록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미국 2분기 성장률이 2.4%를 기록하는 등 견고함을 보인 점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를 자극해 긍정적. 여기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중국 수요 증가 기대가 여전히 진행된 점도 WTI 기준 장중 80달러 상회 요인 중 하나. 한편, 미국 천연가스는 향후 2주 동안 날씨가 선선할 것이라는 소식에 에어컨향 수요 감소 우려로 6% 넘게 하락. 유럽 천연가스 가격 또한 폭염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재고 증가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

달러화는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견고한 2.4%로 발표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더불어 ECB 라가르드 총재가 9월 금리동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온건한 통화정책 기대 속 유로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 강세 요인. 한편, 엔화는 장 중 일본 언론 등을 통해 오늘 있을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YCC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

국채금리는 미국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며 상승. ECB의 온건한 통화정책 언급에도 매파적인 BOJ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이 부각된 것 역시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 이런 가운데 7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52배를 하회한 2.48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약화된 점도 장기물의 상승폭 확대 요인.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로 하락했으나, 온건한 연준과 ECB 통화정책 여파로 낙폭은 제한. 곡물은 봄 밀 수확량이 평균 이상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밀이 하락했으며 옥수수도 주요 작황지에 비가 내려 작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가운데 에탄올 공장들의 입찰가가 약화된 여파로 하락. 대두도 동반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28%, 철근은 0.83%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0.09	+1.33	+5.53	Dollar Index	101.774	+0.88	+0.89
브렌트유	84.24	+1.16	+5.32	EUR/USD	1.0976	-0.99	-1.38
천연가스	2.49	-6.49	-9.61	USD/JPY	139.53	-0.51	-0.39
금	1,985.20	-1.29	-1.31	GBP/USD	1.2796	-1.12	-0.56
은	24.37	-2.78	-2.75	USD/CHF	0.8694	+1.00	+0.30
알루미늄	2,205.00	-0.36	+0.18	AUD/USD	0.6708	-0.74	-1.05
전기동	8,569.00	-0.56	+0.98	USD/CAD	1.3226	+0.14	+0.41
아연	2,454.00	-0.79	+2.96	USD/RUB	90.6899	+0.84	+0.28
옥수수	542.25	-1.09	-0.73	USD/BRL	4.7454	+0.15	-1.09
밀	712.75	-0.94	-1.89	USD/CNH	7.1722	+0.27	-0.04
대두	1,398.00	-1.67	-0.61	USD/KRW	1,277.70	+0.25	+0.61
커피	161.45	-1.04	+2.15	USD/KRW NDF1M	1,282.41	+1.03	+0.4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998	+13.14	+14.79	스페인	3.480	-2.50	-0.70
한국	3.655	-2.50	+8.00	포르투칼	3.171	-3.10	-2.20
일본	0.450	-0.50	-1.70	그리스	3.779	+0.90	-8.20
독일	2.474	-1.10	-1.60	이탈리아	4.071	-3.10	-3.8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